

“도움 주러 왔다가 더 큰 깨달음 얻었어요”

작심 365 <5> 매주 박물관 자원봉사 워킹맘 김순녀씨

봉사활동 점수 고민하던 자녀들 보며 솔선수범 다짐 시간 나눠 쓰며 보람 느끼고 영어해설 도전의식 생겨

워킹맘 김순녀(여·51·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지난해 연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올미련을 맞아 남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항상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일하는 직장여성으로 쪼렷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지난 1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달력 응시원서를 냈다. 김씨는 올 한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안내하고, 간단한 전시 해설을 도왔다.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열려 매주 수백여명이 찾고 있다.

김씨는 나이 오십을 넘기면서 가족만이 아닌 내가 정말로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 문득 2009년 운암3동 주민센터에서 한 달 정도 자원봉사를 했을 때가 생각났다. 당시 김씨는 10년째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도서 출납 자원봉사를 하던 70대 노부부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김씨는 “노부부가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지난해 말 중학교 1학년 쌍둥이가 불을 지폈다.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내신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자 딸이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다. 자녀들에게 엄마는 항상 무엇인가를 시키지만 직접 하지는 않는 그런 존재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해왔던 선배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막상 시작한 일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토요일 하루를 온종일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내가 토요일을 유용하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다.

김씨는 “다른 이들을 돕기도 했지만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면서 내 자신이 몰랐던 것들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게 많았다”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다. 1년을 보내면서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 주변에서 ‘거기 어떻게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엄마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정보를 몰라, 또 막상 실천에 옮기기 힘들어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년에는 전시 해설에 관련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볼 예정이다. 또 유망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일하면서 익힌 영어실력으로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에게 전시 해설도 해보고 싶다. <끝>

/글·사진=김경인기자 kki@

전남대 기술이전 건수

전국 420개 대학중 최다

전남대의 지난해 기술이전 건수가 전국 420여개 대학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9일 내놓은 ‘2014년 대학 산학협력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대의 지난해 기술이전 건수는 11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425개 대학(대학 276개교, 전문대 149개교)의 산학협력 현황·성과를 분석한 보고서 따르면 전남대의 기술이전 건수는 고려대(108건), 성균관대(98건), 서울대(93건)보다 많았다. 조선대도 56건의 기술이전 건수를 기록, 상위 20위권 이상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연구재단 김해도 팀장은 “전남대의 경우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평가했다.

전남대가 이 기간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수입료는 12억9800만원에 달했다. 서울대가 39억4100만원의 기술이전 수입료를 벌어들여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올렸다.

전남대는 또 국내 특허출원 건수(2014년) 219건, 국내특허등록 214건, 해외특허등록 24건 등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치원생들의 위문 공연 연말을 맞아 28일 광주시 동구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호) 7세반 원생 55명이 광주시 동구 용산동의 한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한 뒤 어르신들 앞에서 농악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문화 대안학교 첫 대학 합격자 배출

광주새날학교, 고려인 자녀 등 3명 전남대·동신대 합격

다문화 대안학교인 광주 새날학교가 첫 대학 합격자를 배출했다. 29일 새날학교에 따르면 광주 고려인마을 자녀인 3학년 김엘레나(20), 허아나스타시아(20)양이 새날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남대 영

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학력이 인정되면서 학교운영이 안정됐다. 2013년에는 고등학교 과정이 인가돼 내년 2월이면 첫 졸업생 11명을 배출한다.

새날학교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함께 일반교과의 특별지도도를 통해 대학 입학에 필요한 기초학력 배양에 주력했다. 졸업생 전원이 대학 입학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에 합격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 17:29 달출몰 22:21 달몰림 10:42

오늘밤 사이는 쌓여요
밤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주말은후비:-2/8	보성	점차흐림	-4/7
목포	포말은후비:-2/7	순천	맑은후비:-1/8	
여수	점차흐림	영광	맑은후비:-5/7	
나주	맑은후비:-5/8	진도	맑은후비:-4/8	
완도	맑은후비:-1/8	진주	맑은후비:-3/7	
구례	맑은후비:-4/7	군산	맑은후비:-3/7	
강진	맑은후비:-4/8	남원	맑은후비:-5/7	
해남	맑은후비:-5/8	축산도	맑은후비:-4/9	
장성	맑은후비:-5/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	서~북서 0.5~1.5	관심
	면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관심
남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5	관심
	면바다(동)	북서~북 1.0~1.5	서~북서 1.0~2.0	관심
면바다(서)	북서~북 1.0~1.5	서~북서 1.0~2.0	관심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00	10:16
여수	17:37	22:52
	12:13	05:45
	00:00	18:15

◇주간 날씨

날씨	31(목)	1/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씨	☁	☀	☀	☀	☀	☀	☁
기온	0/8	-2/8	-1/11	2/10	1/8	1/8	2/7

◇생활지수

- 체감온도: 관심
- 동파: 낮음
- 뇌졸중: 높음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야합”

광주 시민단체 성명...근로정신대시모임 “징용 피해 보상안담”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기만적 야합”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역사적 진실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만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진

“日 대사관 오물 뿌리겠다” 협박 광주 30대 입건

위안부 문제 협상 불만 2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자택

주한일본대사관에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주한일본대사관에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한일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대사관에 오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이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114를 통해 일본대사관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정시
인문	신 학 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5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대 학 원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5. 12. 7(월) ~ 15(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5. 12. 18(금) 오전 10시
		목회학과(D.Min.)	2	
	석사	신학과(Th.M.)	25	
신학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10	2015. 12. 19(토) 오후 3시
		신학과(M.Div.)	40	2015. 12. 18(금) 오전 10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2015. 12. 19(토) 오후 3시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2015. 12. 19(토)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임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